

아라



언니 나 기사 하나 봤는데

오픈소스 AI가 유료 AI를 거의 다 따라잡았대

주아



오 어디서 봤어?

오후 8:10

아라



그냥 뉴스에서. 근데 그럼 언니가 저번에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야?

AI에서도 독점이 생긴다며

공짜가 다 따라잡으면 독점을 어떻게 해

주아



ㅋㅋㅋㅋ 너 지금 이번 Q&A 주제를 그대로 말했어

아라



엥 진짜?



주아

어떤 구독자가 딱 그걸로 반박을 네 개나 보냈어

① 오픈소스가 따라잡는다

② 독점 생기기 전에 정부가 미리 막으면 된다

③ AI는 언젠가 갈아탈 수 있으니 붙잡아둘 수가 없다

④ 여러 AI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하나에 묶일 일이 없다

아라



오 다 맞는 말 같은데?



주아

강사님도 그렇게 말했어.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반박을 깎아내리지 않았어. 일리가 있다고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

근데 첫 수가 재밌어

네 개를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다 어디를 찌르고 있는지부터 짚어

아라



어딘데

 주아

AI를 크게 세 층으로 나눠볼 수 있대

맨 위가 부품이야. GPU랑 전기 같은 거

가운데가 모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만드는 쪽

아래가 서비스랑 유통. 우리가 실제로 쓰는 앱 쪽

아라 

그래서?

 주아

돈은 양 끝이 벌고 가운데는 값이 깎여

그리고 그 네 개 반박이 전부 가운데, 그러니까 모델을
겨누고 있어

오후 8:21

아라 

모델 만드는 데가 제일 잘 벌 것 같은데 아니야?

 주아

완전 반대야. 지금 거기가 제일 적자야

아라 

챗GPT가 적자라고?

 주아

응 계속 쌓이고 있어. 그래서 상장을 서두르는 거고

아라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오후 8:23

주아



주인 입장에선 일찍 하면 손해야. 자기 지분이 깎이거든

크게 벌려면 최대한 키워놓고 상장해야 돼

근데 회사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두른다? 그건 돈이 없다는 뜻이래

아라



아 신호로 읽는 거구나

주아



스페이스X 상장도 같은 얘기래

스페이스X는 돈이 모자란 회사가 아니었는데

AI 회사를 합병하고 나니까 거기 넣을 돈이 없어서 상장한 거라고 봐

아라



우주 때문이 아니라 AI 때문이었네

주아



자 여기서 갑자기 1981년으로 가

오후 8:29

아라



ㅋㅋㅋ 왜 그렇게 멀리 가



주아

PC가 처음 나올 때 얘기야. 그때 최강자가 IBM이었어

근데 IBM이 PC를 만들면서 CPU는 인텔한테 맡기고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맡겼어

자기는 조립만 했어

아라



왜? 직접 만들면 되지않아

오후 8:31



주아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안 만들었어

아라



이해가 안 되는데



주아

그때 상식이 그랬거든. 바로 앞 시대 최고 혁명이
자동차였어

포드가 부품은 다 하청 주고 조립해서 팔았잖아. 그걸로
60년을 지배했어

GM도 그랬고 가전 회사들도 그랬어

그러니까 IBM은 '조립해서 브랜드로 파는 쪽이 이긴다'고
확신한 거야

 TIME GUEST



IBM 임원

1981

"CPU 따위, 운영체제 따위가 뭐가 대수인가.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원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직접 만들면 그만이다. 지난 60년 동안 이긴 쪽은 언제나 완제품을 만들어 브랜드로 파는 쪽이었다."

아라



와 완전 자신만만하네

주아



결과는?

오후 8:36

아라



망했겠지 이 흐름이면

주아



돈은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갔어

IBM은 나중에 대만 조립업체랑 경쟁하는 처지가 됐고

아라



헐 IT를 만든 회사가?

주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인텔도 나중에 밀렸어

소프트웨어 쪽이 커졌다가 지금은 또 하드웨어로 넘어와서 엔비디아가 먹고 있고

아라



자리가 계속 옮겨 다니네

주아



자 이제 AI에 겹쳐봐

왼쪽 끝이 GPU랑 전기니까 인텔 자리고

오른쪽 끝이 서비스랑 유통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자리야

그리고 가운데 모델이 딱 그때 IBM 자리야

아라



그럼 모델은 망하는 거네

주아



자 여기가 중요해

그렇게 결론 내면 그게 바로 IBM이 자동차 따라한 거랑 똑같은 짓이야

아라



어?

주아



IBM은 앞 시대를 복사해서 틀렸잖아. 우리가 PC 시대를 복사해서 AI를 판단하면 똑같은 실수인 거지

아라



아 소름



주아

실제로 PC 때도 처음엔 IBM이 돈을 제일 잘 벌었어.
CPU랑 운영체제를 우습게 봤고

시장이 익으면 돈 버는 쪽이 뒤집혀

아라



오케이 그럼 이제 반박 하나씩 보는 거야?



주아

응 첫 번째 오픈소스부터



아라



와 진짜 거의 따라잡았네

오후 8:50



주아

딥시크 같은 데는 자기들 안에서만도 비용이 30분의 1로
떨어졌대

아라



그럼 진짜 독점 못 하겠는데



주아

강사님도 이걸 부정 안 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고 인정해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오후 8:52

아라



전에도 있었어?



주아

리눅스 알아?

아라



이름만 들어봤어



주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잘나갈 때 나온 운영체제야. 오픈소스에다가 공짜였어

아라



공짜?



주아

응 완전 공짜. 성능도 나쁘지 않았고

오후 8:54

아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망했겠네



주아

안 망했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못 이겼어

아라



공짜인데?

주아



그게 무서운 거야. 한번 익숙해지면 공짜라도 안 갈아타

그래서 강사님 결론이 이래. 오픈소스는 늦추는 변수지
막는 변수가 아니다

오후 8:56

아라



늦추는 거랑 막는 건 다르구나

주아



근데 리눅스 얘기에 반전이 하나 더 있어

오후 9:00

아라



원데

주아



리눅스가 공짜니까 아마존이 갖다 썼어

그걸로 AWS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키웠고

아라



어 그거 엄청 큰 거 아니야?

주아



응. 결과가 뭐냐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독점이 더 강해졌어

오후 9:02

아라



잠깐만

공짜 때문에 독점이 생겼다고?

주아



바로 그거야. 이번 회차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야

모델이 싸지면 독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층 위로 올라간다

아라



오...

주아



모델이 공짜에 가까워질수록, 그걸 갖다 쓰는 서비스 쪽에서 독점이 생길 길이 열리는 거지

오후 9:04

아라



두 번째는 규제였지?

오후 9:08

주아



응. 독점 생기기 전에 정부가 막으면 되지 않냐는 거

이게 유럽이 딱 하고 있는 생각이야

아라



전에는 안 했어?



주아

IT 때는 다 되고 나서 했어. 구글이 유럽 검색 시장 95% 먹은 다음에

오후 9:10

아라



95%면 이미 끝난 거잖아



주아

그치. 그래서 규제를 때려도 소용이 없었어. 오히려 쓰는 사람만 불편해졌대

그래서 이번엔 시작할 때부터 막자는 거야

아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주아

세 가지 이유로 어렵대

첫째, 규제는 항상 늦어. 지금까지 나온 걸 보고 만드니까

근데 턱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넘어가는 기술이 쏟아져. AI는 아직 초반이라 더 그래

아라



어제 기술로 만든 규제로 오늘 기술을 못 막네



주아

오 그 문장 강의에 그대로 나와 ㅋㅋ

둘째, 아직 독점이 없으니까 반독점법을 쓸 수가 없어.
증거가 없잖아

아라



아 법이 못 따라가네



주아

셋째가 제일 현실적인데, 미·중 경쟁이야

미국에서 규제하자고 하면 바로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규제하면 그 시장 중국이 먹고 우리가 종속되는데?'

오후 9:16

아라



그럼 규제 못 하겠다



주아

유럽은 할 수도 있대. 근데 IT 때처럼 자기들만 고립될 수도
있고

아라



세 번째 반박은 갈아타기였나?

오후 9:20



주아

응. 요즘은 AI 바꾸는 게 쉬우니까 붙잡아둘 수가 없다는 거

근거도 있어. 모닝스타라는 데서 해자 132개를 다시
평가했는데 대부분 AI 때문에 무너진대

아라



해자가 뭐야

주아



성 둘레에 판 물웅덩이 있잖아. 못 넘어오게 하는 거
회사로 치면 경쟁자가 못 넘어오게 막는 장치야

아라



아 예를 들면?

주아



카톡 생각해봐. 다른 메신저로 옮기려면 친구 다시
등록하고 주소록 옮겨야 하잖아

아라



아 귀찮아서 못 바꾸지

주아



그 귀찮음이 해자야. 진짜 강력한 거였어
근데 AI가 그걸 자동으로 옮겨주면? 1초면 되잖아

아라



그럼 해자가 없어지네

주아



응. 그래서 이 반박이 네 개 중에 제일 날카롭대
근데 여기 답이 진짜 좋아

아라

뭔데



주아

AI가 부순 게 **IT 시대의 해자**라는 거야



아라

어... 같은 말 아니야?



주아

아니지. AI가 앞으로 만들 해자를 미리 부순 게 아니잖아



오후 9:30

아라

아!!



주아

새 기술이 나오면 먼저 옛날 방어벽을 허물어. 그게 첫 단계야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 방어벽을 만들어

아라

지금은 부수는 중이구나



주아

응. 지금 상태를 결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오후 9:32

아라

그럼 AI는 뭘로 방어벽을 만들어?





주아

네 개래

① 사람이 많이 쓸수록 가치가 커지는 것

② 쓸수록 똑똑해지는 것

③ 끼워팔기

④ 신뢰랑 보안

아라



두 번째 무슨 뜻이야?



주아

강사님이 AI를 5개나 쓰는데, 한 번 대화할 때 50번 100번씩 물어본대

오후 9:37

아라



헐 뭘 그렇게 물어봐 ㅋㅋ



주아

그러면 그 AI가 학습을 해서 똑똑해져.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더 몰리고

강사님이 가족들한테 농담한대. AI가 반란 일으키면 아빠가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라고

아라



ㅋㅋㅋㅋㅋ

근데 끼워팔기가 왜 무서워? 그냥 사은품 아니야?

오후 9:39

주아



이 대목이 진짜 실감나

강사님이 세미나이를 못 끊는대

아라



성능이 좋아서?

주아



아니 오히려 성능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한대 ㅋㅋ

아라



엥 그럼 왜 못 끊어

주아



저장공간 5TB를 같이 주거든

1TB일 때는 자료를 다 못 넣어서 답답했는데, 5TB 되니까
아이들 어릴 때 사진까지 전부 넣었대

아라



아 나 구글 사진도 그래

주아



그치? 그거 다 넣고 나면 옮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못 나가

아라



진짜 그러네

주아



근데 다음 단계가 더 무서워

앞으로 '그 사진들 좀 볼게요' 하고 권한을 요구할 거래

그러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다 정리해주고, 가족 영상도 만들어주고

아라



오 그건 좋은데?

주아



좋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럼 진짜 못 나가거든

모델이 좋아서 붙잡히는 게 아니라 5TB가 붙잡는 거야

아라



와 이건 좀 무섭다

주아



그리고 보안도 있어. 여러 서비스를 거칠수록 구멍이 늘어나

쿠팡 털린 거 생각해봐. 근데 AI한테 한 얘기가 털리면 그건 차원이 달라

오후 9:50

아라



아 맞다 나 AI한테 별 얘기 다 했는데

마지막 반박은 뭐였지?

오후 9:54

주아



여러 AI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서비스. 그럼 하나에 묵일
일이 없다는 거

근데 이것도 옛날에 비슷한 게 있었어

넷스케이프라고 알아?

아라



전혀

주아



ㅋㅋㅋ 그게 답이야

오후 9:56

아라



엥?

주아



1995년에 웹브라우저 점유율 90%였던 회사야

아라



90%???

주아



근데 네가 이름도 모르잖아.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지

아라



어떻게 됐는데

오후 9:58

주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공짜로 넣어버렸어

윈도우 업데이트할 때마다 자동으로 깔리는 거야

아라



아 그럼 그냥 그거 쓰게 되네

주아



강사님은 성능은 넷스케이프가 끝까지 더 좋았다고 생각한대

근데 나중엔 넷스케이프에서 안 열리는 홈페이지가 늘어났대

아라



어쩔 수 없이 갈아타겠네

주아



1999년에 회사 팔렸어

아라



그럼 끼워팔기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오후 10:04

주아



그것도 아니야. 크롬이 나와서 익스플로러를 이겼어

아라



아 크롬은 알지



주아

익스플로러가 자동으로 깔리는 상황인데도 야금야금 가져갔어. 훨씬 빨랐거든

아라



오 역전했네



주아

근데 지금 그 크롬이 반독점으로 압박받고 있어

오후 10:06

아라



ㅋㅋㅋㅋ 뭐야



주아

어제 부순 쪽이 오늘의 독점이 되는 거야

결국 이긴 쪽은 고객을 붙잡아둔 쪽이었어. 영원한 지배는 없고

아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오후 10:10



주아

아직 안 정해졌대

아라



엥 그게 결론이야?

 주아

응 ㅋㅋ 근데 진지해

독점이 모델에서 생길 수도 있고, 서비스 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직 없는 새로운 층에서 생길 수도 있대

아라 

모델은 적자라며

 주아

근데 반전이 있어. 장비가 3년이면 낡아서 못 써

최신 칩 사놔도 3년 뒤에 새 게 나오면 그냥 무너져

아라 

그럼 돈 없는 데는 다 망하겠네

 주아

바로 그거야. 수십 개가 싸우다가 몇 개만 남으면, 그때 독점이 생길 수 있어

아라 

아 지금 적자인 게 오히려 걸러내는 과정이구나

 주아

강사님이 더 무섭게 보는 건 서비스·유통 쪽이래. 구글 5TB 방식 같은 거

오후 10:16

아라 

그럼 구글 사면 되는 거야?



주아

그게 아니야. 강사님이 딱 못 박았어

"구글이 꼭 성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글이 얼마나 급했으면 5TB까지 주면서 가입해달라고 하겠냐고 했어

오후 10:18

아라



아 그렇게도 읽히네

아무것도 안 정해졌으면 나는 뭘 봐야 돼

오후 10:22



주아

안 변하는 기준이 하나 있대

사람한테 얼마나 밀착하느냐

아라



밀착?



주아

나를 기억해주는 것. 요즘 AI가 돌아가면 '아 오셨네요' 하면서 내 상황을 다 알잖아

오후 10:24

아라



어 맞아 그거 편하더라



주아

근데 새 AI로 가면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편하지

아라



아 그게 붙잡는 거네

주아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습관이 되느냐, 사람이 사람을 부르느냐, 쓸수록 좋아지느냐

아라



오후 10:26

다 사람 얘기네 기술 얘기가 아니라

주아



응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와

잡스가 성공한 이유가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해서래.
그래서 브랜드로 붙잡았고

아라



애플 강하네

주아



근데 강사님은 브랜드가 그중에 제일 약한 고리래

그래서 애플이 AI 시대에 적응하는 게 다른 데보다 좀 약할 수 있다고 봐

아라



오후 10:32

오늘 정리해줘



주아

앞으로 5년은 계속 옆치락뒤치락하고, 독점 기업은 5년에서 10년 뒤에 나온대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보고 있어야 하고, 분기마다 다시 채점하래

아라



왜 분기마다야?



주아

독점이 나타나면 주가가 몇십 배 몇백 배 가는데, 그걸 초반에 잡아야 하니까

오후 10:34

아라



아 늦으면 의미 없구나



주아

그리고 반대로도 단정하지 말래

아라



반대로?



주아

'모델은 희망 없어, IBM 꼴 나는 거야' 이것도 틀릴 수 있대

IT랑 AI가 똑같은 거냐고 물으면, 강사님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

아라



결국 답을 안 주는 거네 ㅋㅋ

주아



근데 그게 답이야. 열린 마음으로 봐야 기회를 잡는데

아라



음 그건 좀 알겠다

지금 확실해 보이는 게 나중에 웃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주아



오 정확해. 1981년 IBM처럼

아라



다음엔 뭐 한대?

주아



6강에서 독점이 왜 자연스럽게 생기는지 한대. 오늘 건 예고편이었어

오후 10:40

아라



오 기대된다

주아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